

2024-14호

DaWinKS Weekly Report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Contents

1. Company Activity

- 다원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 Digital ATM 운영 현황
 - :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 충전), 디지털머니 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삼청동점 / 명동중앙점 /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파트너사 소식
 - 포블, 국내 거래소 운영 위해 필요한 ISMS 갱신
-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2. Blockchain News

-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구직자 '챗GPT'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감점이나 불합격
- "AI 안전한 사용 합의 시급"...유엔총회, 첫 결의
- 인공지능, 국내 주요기업 38%가 도입, 85.7%는 업무 소요시간 줄인다!... 경총,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 K스타트업 글로벌 R&D, 미국·유럽 이어 동남아도 지원
- "암호화폐, 라틴아메리카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사기냐 미래 먹거리냐, 코인시장에 '실물연계자산 RWA' 바람
- 인천, 블록체인 허브도시 가동...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
- 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플랫폼 구축 속도
- 빗썸-NH농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6개월 연장
-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플랫폼 1~2년내 출범"
- 골드만삭스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옵션 관심 급증"
- 가상자산 상장 더 엄격해진다...당국, 상반기 내 상장 '모범사례' 배포
-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 비트코인 시장 중심축, 아시아서 美로 이동...ETF 출시 영향
-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 기약없는 비트코인ETF...맥빠진 가상자산 공약

Contents

3. Blockchain Financial

-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 [주간코인시황] 결국 반등한 비트코인... "상승 여력 충분"
- 기업가치 10조 파이어블록스, 한국 시장 넘본다[디센터 인터뷰]
- 투심 개선되자 깨어난 블록체인 콘텐츠, 다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등록 수수료 인상, '큰 손' 불러 들이는 것"
- 비트코인 본격 반등 언제쯤..."당분간 조정 지속될 듯"
- 가상자산 거래소, 앱 개선 가속...차별화 어떻게?
-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뚝'...비트코인 수요 폭발
- 필리핀 규제 당국, 현지 투자자 바이낸스 접근 차단 조치
-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 "모든 비트코인이 매수되고 있다" 크립토크의 '유동성 위기' 경고
- "현금화 불가능"...거래소에 묶인 가상자산

4. DaWinKS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9JKKL0sGo>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25_pbO1B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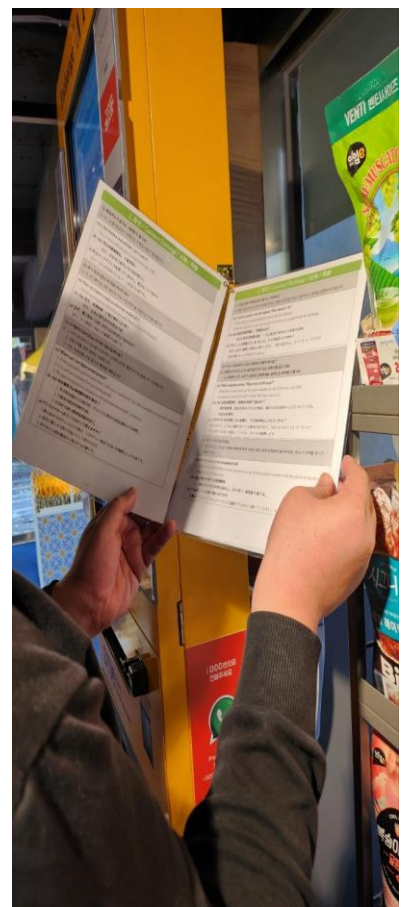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1호 : 이마트24 삼청동점 – 2023.1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8, 팝업스토어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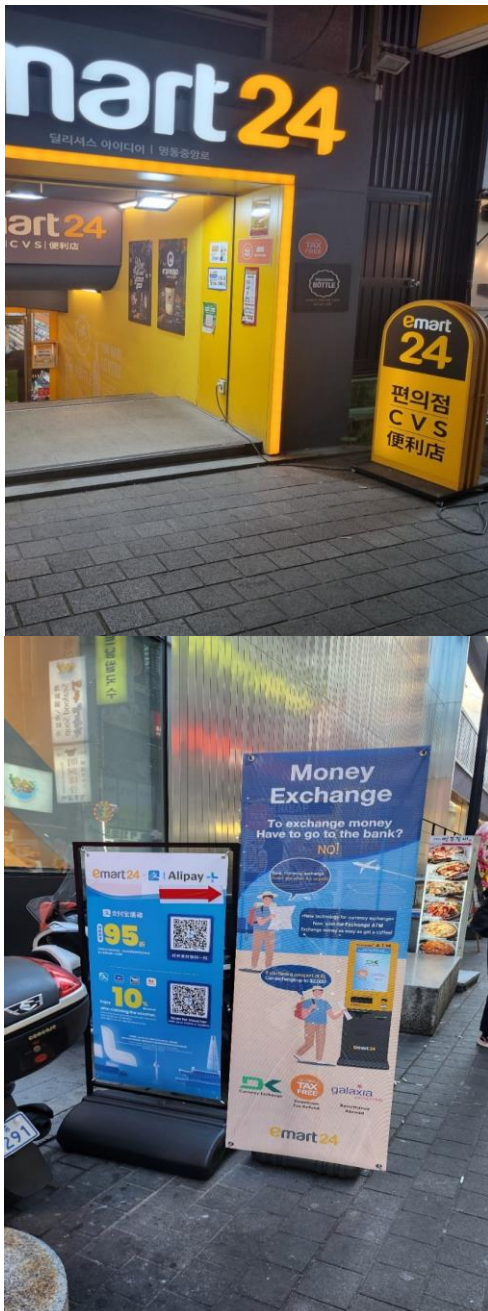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2호 : 이마트24 명동중앙로점 - 2023.12.0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1-7, 지층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3호 : 이마트24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2024.01.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 Company Activity

포블, 국내 거래소 운영 위해 필요한 ISMS 갱신

최근 ISMS 갱신 심사 통과해 유효기간 2027년 4월까지 연장
3개 영역에서 102개의 인증기준과 세부점검항목 49개 통과



news1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이 ISMS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포블 자료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해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포블은 지난 2021년 첫 ISMS 인증 획득 이후, 최근 진행된 갱신 심사를 통과해 인증 유효기간을 2027년 4월까지 연장했다.

갱신 심사는 최초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포블은 고객자산의 정보보호, 내부 유출 방지 통제 모니터링, 해킹 대응 역량 등에 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재검증 받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5667>

1. Company Activity

포블, 국내 거래소 운영 위해 필요한 ISMS 갱신

이번 ISMS 인증 갱신 과정에서 포블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3개 영역에서 102개의 인증기준과 가상자산 세부점검항목 49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 심사 및 평가를 통과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갱신을 통해 포블은 정보보호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 Company Activity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Money Exchange

환전하러 은행까지 가야 돼?
NO!

은행, 환전소 급할때는 안 보이네!

환전의 신기술
이제, **무인환전기 DTM**으로 커피 뽑듯 간편하게 환전하세요!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2천불까지 환전 가능하대구!

Crypto ATM/ CTM

코인(암호화폐)도 가능하대구?

OK, 정말!
CTM 으로 고고씹~

Money Exchange

To exchange money Have to go to the bank?
NO!

Bank, Currency exchange I can't see when it's urgent!

New technology for currency exchange
Now, with the **DTM**, Exchange money as easy as get a coffee!

If you have a passport or ID, Can exchange up t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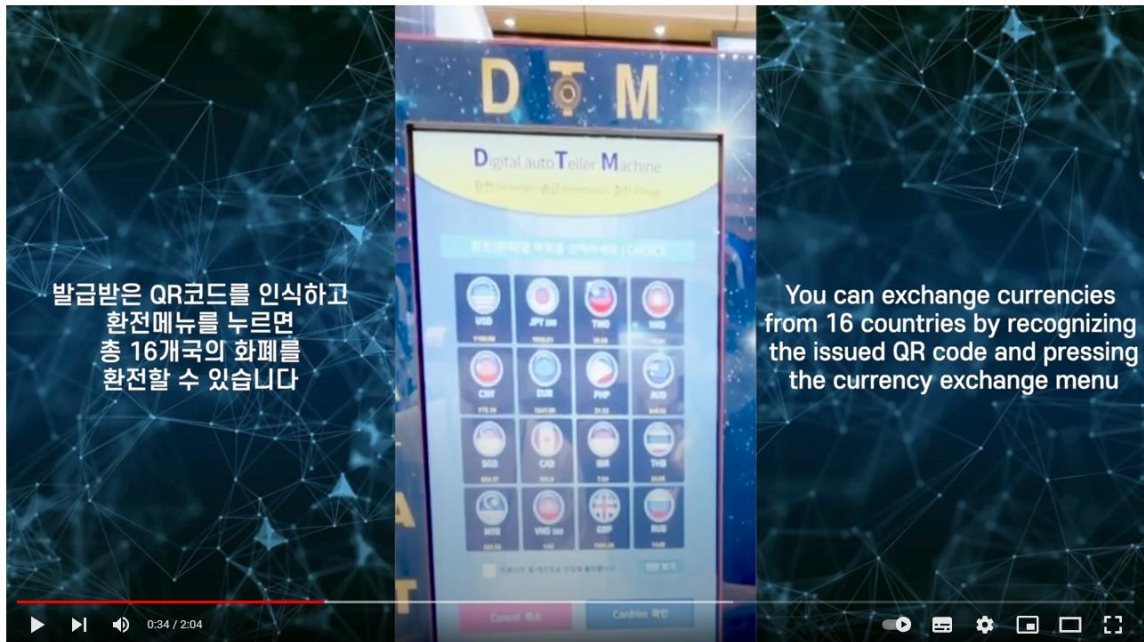
Crypto ATM/ CTM

Coin (cryptocurrency) too It'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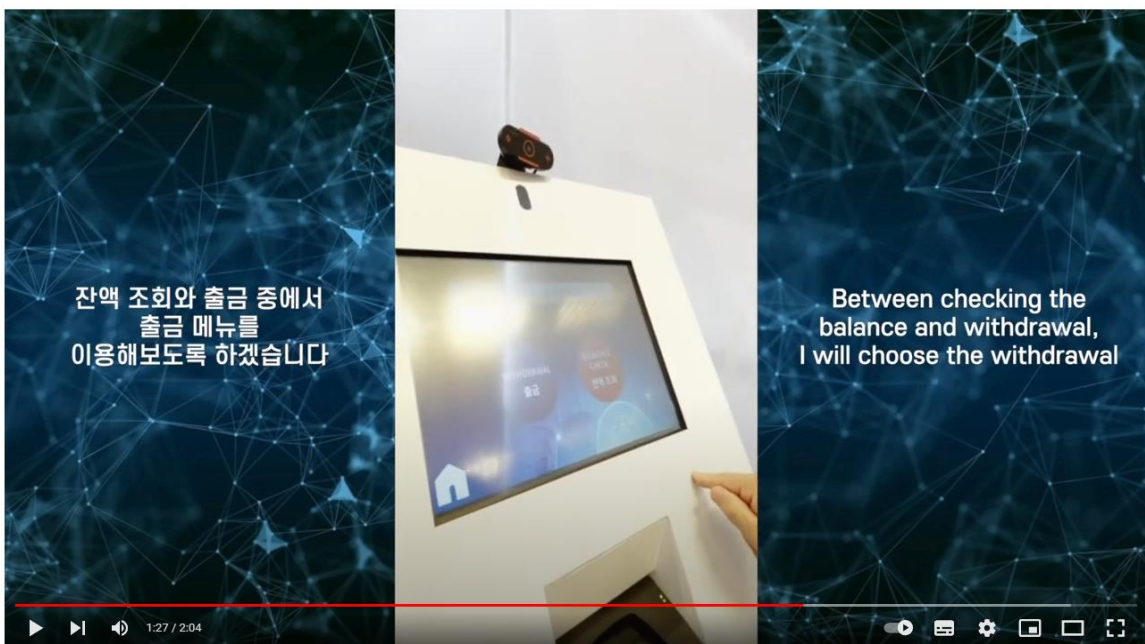
Okay, it's true!
Let's go to CTM!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2. Blockchain News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구직자 '챗GPT'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감점이나 불합격!



이미지:본지DB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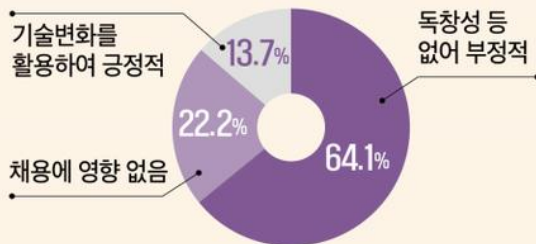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사 응답, 응답률 63.0%)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실시했으며,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과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기업과 청년 모두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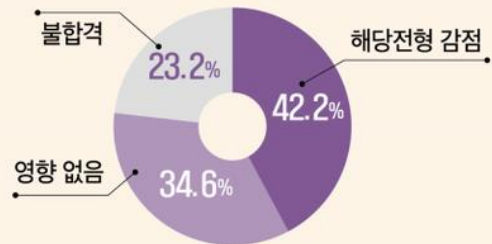
2. Blockchain News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구직자 '챗GPT'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면 감점이나 불합격!

→ Chat-GPT로 작성된 자소서에 대한 기업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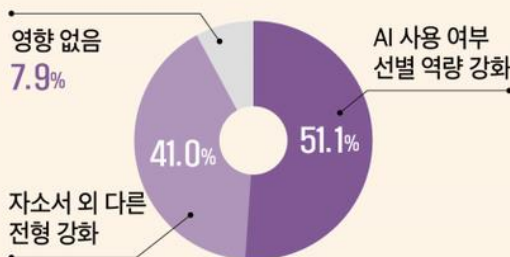
→ Chat-GPT로 작성된 자소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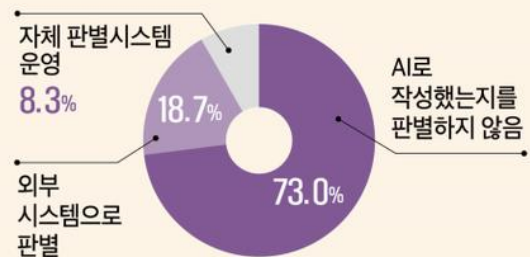
이미지:본지DB

특히, 구직자들이 챗GPT(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했으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Chat-GPT 활용에 대한 기업의 대응



→ Chat-GPT 사용 여부에 대한 판별시스템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GPT를 활용해 작성되었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2. Blockchain News

"AI 안전한 사용 합의 시급"...유엔총회, 첫 결의

주유엔 美대사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기로 결정"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AFP=연합뉴스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유엔총회의 결의안 논의에 앞서 "AI의 안전한 사용을 조성하는 데 역사적인 한 발을 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결의안에는 AI 개발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211>

2. Blockchain News

"AI 안전한 사용 합의 시급"...유엔총회, 첫 결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AI 관련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신흥국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안전한 AI 시스템을 위해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고 지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언론, 학계, 연구기관, 개인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후 회견에서 "오늘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모두가 한목소리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인공지능, 국내 주요기업 38%가 도입, 85.7%는 업무 소요시간 줄인다!...
경총,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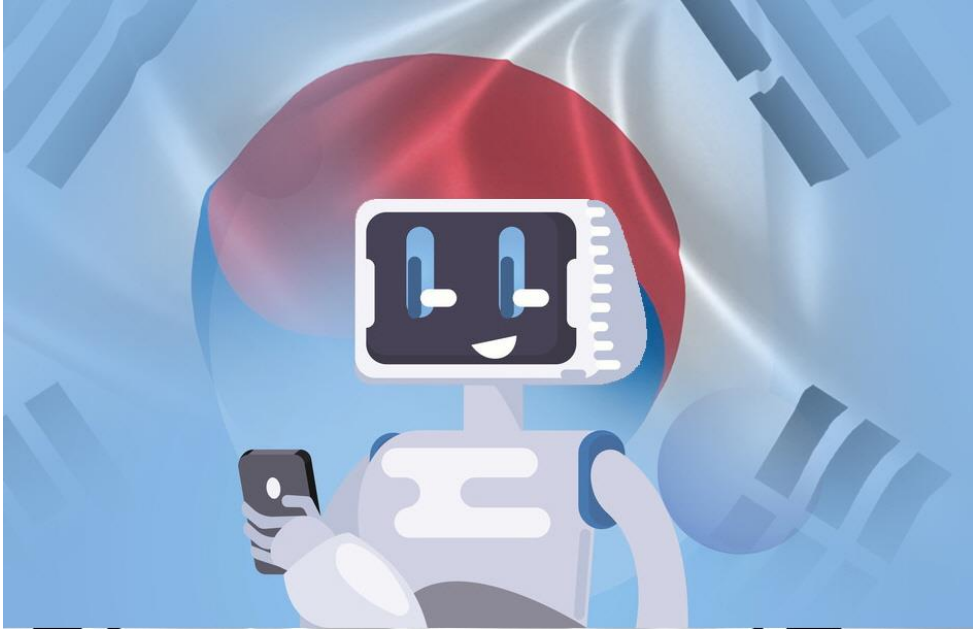


사진:아이스톡, 편집:본지

인공지능(AI)을 도입하거나 곧 도입 예정인 국내 주요 기업의 85.7%는 AI 활용이 업무 소요시간을 줄이며, 기업 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이 75.0%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매출 상위 기업 및 경총 주요 회원사에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및 유선 조사로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0%는 챗GPT(ChatGPT), 제미니(Gemini) 등 같은 생성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AI 도입 현황 및 영향력에 대해 매출 상위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업들의 AI 도입 및 활용 범위 확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0704>

2. Blockchain News

인공지능, 국내 주요기업 38%가 도입, 85.7%는 업무 소요시간 줄인다!...
경총,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목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22년 기준) 및 경총 주요 회원사 대상 설문 조사 응답 기업 50개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AI 도입 현황으로 생성형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응답은 38.0%(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도입 16.0% + 회사 차원에서 일부 부서에 도입 22.0%), "도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2.0% (회사 차원의 도입은 없으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활용 50.0% + 회사 차원에서 활용 금지 12.0%)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별로는 '회사 차원의 도입은 없으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활용' 응답(50.0%)이 가장 많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활용을 금지'했다는 응답도 12.0%로 나타났다.

또한 ▷AI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AI를 회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정보 유출 우려'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준비 기간 필요' 29.0%, '업무 특성상 필요하지 않음' 16.1% 順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AI 도입 계획은 현재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29.0% (2~3년 이내 도입 16.1% + 3년 이후 도입 12.9%)는 "향후 AI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71.0%(전체 응답기업 중 44.0%)는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업무 소요시간 단축 인식 조사에서는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 (전체 응답기업의 56.0%=회사 차원에서 도입 38.0% + 도입 예정 18.0%)의 85.7% (줄일 것 14.3% + 약간 줄임 71.4%)는 "AI가 업무 소요시간을 줄였다(줄일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I가 업무 소요시간을 줄이지 않았다(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14.3%였다.

2. Blockchain News

인공지능, 국내 주요기업 38%가 도입, 85.7%는 업무 소요시간 줄인다!...
경총,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AI가 기업 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AI를 도입(예정 포함)한 기업들은 주로 AI 도입.확대로 인해 일자리 대체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전문인력 확보,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신규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을 것(75.0%)"으로 답했다. AI 도입.확대로 인한 일자리 대체 효과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체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란 응답은 17.9%였다. AI 도입.확대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7.1%로 집계됐다.

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AI 도입·확산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하는 방식이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 '기술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 Blockchain News

K스타트업 글로벌 R&D, 미국·유럽 이어 동남아도 지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유럽 중심이던 스타트업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 지원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1284개 창업 초·중기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사업 내에 160개 기업 규모의 글로벌 R&D 분야를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 40개사를 선발했는데, 올해는 동남아 진출을 원하는 기업도 모집한다. 현재 동남아 진출을 담당할 글로벌 R&D 운영사를 모집 중이다.

디딤돌은 창업 7년 이하·매출액 20억 이하 스타트업에게 1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R&D 자금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중점 평가해 기업을 선발해 해외 투자유치, 제품 서비스 시연, 현지 파트너 발굴 등을 돕는 트랙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대상 사업화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https://www.etnews.com/20240322000161>

2. Blockchain News

K스타트업 글로벌 R&D, 미국·유럽 이어 동남아도 지원

올해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은 지리·문화적 이점으로 동남아가 스타트업이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 되어서다.

지난해 창업진흥원 창업벤처 정책이슈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지역으로 동남아가 41.2%로 동북아(48.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질문에도 동남아가 24.6%로 북미(32.3%) 다음으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10월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 사무공간 등을 구축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개소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지원 기업을 파악한 후 160개 기업의 지역별 배분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스타트업의 R&D와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할 수 있는 동남아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암호화폐, 라틴아메리카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마스터카드 보고서



금융 서비스 대기업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라틴 아메리카의 송금 생태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최근 라틴 아메리카 송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송금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현금에서 디지털 옵션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1명이 총 8310억 달러에 달하는 송금을 받는 가정에 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로 송금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송금액의 5.8%로, 전 세계 평균 6.3%와 비교해 볼 때 낮았으며, 때때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최대 25.5%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43>

2. Blockchain News

"암호화폐, 라틴아메리카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현재 송금액의 43%를 디지털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52%와 비교된다. 디지털 송금은 2026년까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는 지갑 제공업체인 벨로(Belo)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이낸스 및 마스터카드 등 여러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디지털화 노력은 송금 거래 자체에 국한되어 있다. 비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줄이고 완전히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수취국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플레이어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지능적으로 엮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 Blockchain News

사기냐 미래 먹거리냐, 코인시장에 '실물연계자산 RWA' 바람

장밋빛 전망 우세한 가운데 "테라·루나 사건은 한계" 지적도

"올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RWA(실물연계자산, Real World Asset)가 될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의 대표주자 '시큐리티이즈(Securitize)'와 손잡고 토큰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인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RWA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은 물론 금과 커피 등 현실 세계의 유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으로, 전통적인 자산과 코인을 연결해 그동안 코인의 한계로 지목된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실물연계자산(RWA)은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금 등 현실 세계의 유무형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이다. 사진=crypto.com

#10년 안에 10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RWA는 코인업계가 주목하는 유망분야다.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21.co는 보고서에서 RWA 시장 규모가 강세장일 경우 10년 안에 10조 달러(약 1경 3400조 원), 약세장일 경우 3조 5000억 달러(약 4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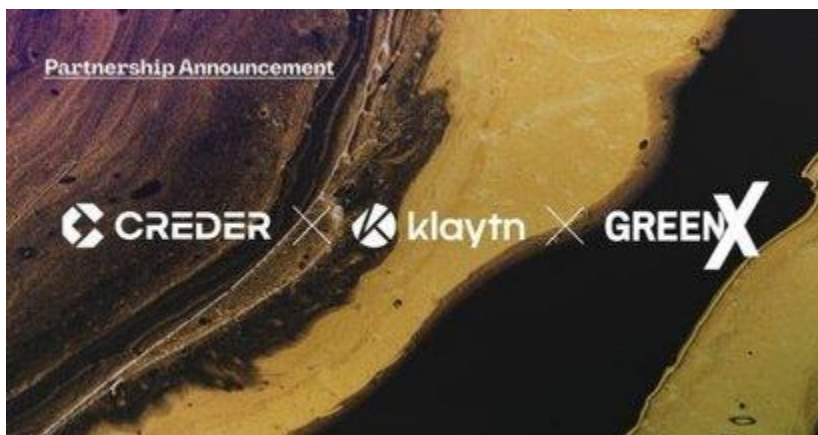
2. Blockchain News

사기냐 미래 먹거리냐, 코인시장에 '실물연계자산 RWA' 바람

21.co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법정화폐, 주식, 국채 등과 같이 전통 자산 간의 융합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RWA 시장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또한 RWA 시장이 16조 달러(약 2경 1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연동한다는 개념에서 증권형 토큰(STO)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RWA는 자산을 토큰화해, 자산이 쪼개져서 유통되는 단위를 작아지게 만들어 투자자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유권을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이전할 수 있을뿐더러,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산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분할해 갖는 조각투자도 가능하다.

RWA가 초기 시장인 만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유의미한 RWA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분주하다. 클레이튼재단은 RWA 플랫폼 업체 '크레더', 말레이시아 가상자산거래소 '그린엑스'와 RWA 토큰 사업 확장을 위한 3자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처럼 코인업계가 RWA를 하나의 활로로 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유의미한 RWA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분주하다. 최근 클레이튼재단은 RWA 플랫폼 업체 '크레더', 말레이시아 가상자산거래소 '그린엑스'와 RWA 토큰 사업 확장을 위한 3자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클레이튼

2. Blockchain News

사기냐 미래 먹거리냐, 코인시장에 '실물연계자산 RWA' 바람

#시장에서도 주목, 체인링크 가격 급등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도 RWA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장격으로 평가받는 체인링크가 대표적이다. RWA 개념이 지난 10월부터 자산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체인링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8000원대에 거래가 되던 체인링크는 25일 오전 현재 2만 600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리저브라이트, 폴리매쉬, 메이커, 리본파이낸스, 크레딧 코인 등이 대표적인 RWA 코인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세이도 RWA 계열이라는 분석과 함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관심 코인이 RWA 계열인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 여전

하지만 RWA 계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고운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특히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했을 때, 이를 구매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점은 관건이다. 토큰화된 미술작품의 권리를 쪼개어 가진다고 할 때 작품 소유자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같은 문제가 있다. 도난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알트코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실물자산 연계로 '안전성'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거꾸로 투자 시장에서는 급등락 폭이 큰 '잡코인'이라는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 특히 테라·루나 사건으로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한 RWA 코인 대표는 "테라·루나 사건으로 RWA 코인을 '사기'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이를 여러 프로젝트로 입증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7335>

2. Blockchain News

사기냐 미래 먹거리냐, 코인시장에 '실물연계자산 RWA' 바람

코인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이번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하락장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프로젝트’를 입증한 곳들만 남지 않겠나”라며 “RWA 기반 코인들에 그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2. Blockchain News

인천, 블록체인 허브도시 가동...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

| 2024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
| 국비 18억 원 확보...기업 지원 예정



출처=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올해 말 송도 미추홀타워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모한 '2024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대구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2월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인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기술혁신지원센터에는 △기술 개발·실증 공간 △기업 입주 사무실(10개실) △공유 오피스(16좌석) △다목적실 △회의실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실증 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 자금·컨설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 환경을

<https://www.decenter.kr/NewsView/2D6T9LGU9M/GZ03>

2. Blockchain News

인천, 블록체인 허브도시 가동...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

조성한다. 나아가 기업 수요에 맞춰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기반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플랫폼 구축 속도



여의도 증권가. /유토이미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조각투자 상품들의 흥행 실패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5~6년 이내에 시장이 10배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잇따라 완판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식어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발행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쿠사마 야오이의 '호박'은 청약률이 73%에 그치며 실권주가 발생했고, 서울옥션블루가 선보인 앤디워홀의 '달러사인' 8호 공모도 청약률이 77% 수준이었다. 투게더아트의 조각투자 청약률도 86%로 목표액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325500474>

2. Blockchain News

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플랫폼 구축 속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미 STO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STO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STO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거래 수수료 수익 등 토큰증권의 유통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 기반 개발사 블록체인글로벌 등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인프라에서 컨설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지난달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과 MOU를 체결했으며 하나증권은 프린트베이커리, 루센트블록,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과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아트 플랫폼 '아투'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크우'를 운영하는 스타키퍼와 협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은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B·신한투자·NH투자증권은 3사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대형 증권사 공동 인프라'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2. Blockchain News

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플랫폼 구축 속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MTS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했다.

삼성·SK증권도 우리은행과 토큰증권 사업 기반을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황으로 올해 중 플랫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라이선스를 도입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에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가 신설되고, 현행법상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안 발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 데다 더욱이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상반기 중 법안 수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토큰 증권 제도화에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빗썸-NH농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6개월 연장



(출처=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농협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빗썸 사용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농협과 1년씩 계약을 맺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시장 변화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이 인적 분할로 조직을 정비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빗썸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를 인적 분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07>

2. Blockchain News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플랫폼 1~2년내 출범”



“실험 단계 벗어나...주요국 CBDC 도입 지연되면 변동 가능”

은행 간의 국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움직임에 발맞춰 1~2년 안에 CBDC 플랫폼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의 혁신 부문 책임자인 닉 케리건은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향후 12~24개월 안에 (이러한 플랫폼을) 상용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각국 주요 금융업체들이 송금 및 무역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전산망이며, 미국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한 바 있다.

2. Blockchain News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플랫폼 1~2년내 출범"

스위프트는 새 플랫폼을 통해 각국이 개발 중인 CBDC를 기존 금융시스템에 연결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거래에서 스위프트의 현 지배력을 유지하고 세계 결제 시스템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스위프트 CBDC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200여개국 1만1천500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존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탈중앙화를 내건 가상화폐 개발이 활성화된 가운데, 전 세계 중앙은행 중 90%가량도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가계·기업의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 디지털 결제 주도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금융기관 간 거래 등에 쓰일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를 개발 중인 곳도 있다.

바하마·나이지리아·자메이카 등은 이미 CBDC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BIS)은 2022년 말 86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4개국이 CBDC를 보유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위프트 측은 최근 6개월에 걸쳐 CBDC 플랫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서로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CBDC들이 한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도로 복잡한 거래나 외환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으며, 자동화를 통해 속도를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는지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플랫폼 1~2년내 출범"

테스트 결과 은행들이 새 플랫폼에서도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개발 시간표와 참가 기관들의 평가를 볼 때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다고 스위프트 측은 평가했다.

해당 테스트에는 독일·프랑스·호주·체코·태국 등의 중앙은행, HSBC·씨티은행·소시에테제너랄 등 상업은행, CLS 등 외환결제 플랫폼까지 38곳이 참여했다.

스위프트 측은 다만 주요국들의 CBDC 발행이 지연될 경우 1~2년 내로 보고 있는 스위프트의 플랫폼 출범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DC 플랫폼에서도 대러시아 제재와 같이 특정국을 배제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플랫폼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 Blockchain News

골드만삭스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옵션 관심 급증"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기관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투자 환경이 눈에 띄게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골드만 아시아 퍼시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맥스 민톤에 따르면 상당수의 회사 고객 등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했거나 기회를 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의 영향이 크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암호화폐 자산을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민톤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승인된 10개의 비트코인 ETF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으며, 이것이 고객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과 활동을 불러모으는 촉매제라고 설명했다.

<https://www.coindesk.com/policy/2024/03/18/sec-committed-gross-abuse-of-power-in-suit-against-crypto-company-federal-judge-rules/>

2. Blockchain News

골드만삭스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옵션 관심 급증"

또한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와 기타 기관 고객으로부터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했다. 민톤은 고객이 암호화폐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수단이다. 또한 골드만의 기관 고객들은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승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ETF의 승인 확률을 35%로 추정했다.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상장 더 엄격해진다...당국, 상반기 내 상장 '모범사례' 배포

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도 다듬는다
"닥사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이고 무게감도 다를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상장) 정책 및 기준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앞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상장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 모범사례로부터 자체적인 상장 프로세스를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당초 배포한다고 밝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 안에 가상자산의 상장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3348>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상장 더 엄격해진다...당국, 상반기 내 상장 '모범사례' 배포

당국은 금감원의 현장컨설팅 실시 등을 포함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부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해당 모범사례 안에는 주로 이상거래 및 상시감시 모범사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기존 자율규제 체계 안에서 다소 '무분별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거래소별 상장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4월 안에 상장 관련 모범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로부터 이전보다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체계를 갖춘 상장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이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발표한 닥사표 상장 가이드라인이 국내 거래소 시장 안에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위믹스 재상장 논란을 예로, 여전히 거래소별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일명 '코인 불장'을 맞아 거래소들이 상장 속도를 내는 추세다.

특히 업계 2위와 3위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과 코인원이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국의 이 같은 모범사례가 발표되면 향후 2, 3위 거래소도 상장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63348>

2. Blockchain News

가상자산 상장 더 엄격해진다...당국, 상반기 내 상장 '모범사례' 배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사례이지만, 자체적인 자율협의체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당국이 발표한 상장 관련 모범사례의 무게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상장 관련 모범사례와 관련해 "당국이 같이 개입해서 준비했다면 거래소에서도 이를 조금 더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을 것"이라며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사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닥사가 작년에 발표했던 공동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닥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이었다. 그것보다는 자세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가상 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최근 단점을 보완하는 응용기술이 발전하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으로 기관투자자 참여가 가능해져 투자 자산으로 안착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르겠지만, ‘급등 기회 놓칠라’ 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의 추격 매수는 경계해야 합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이번 비트코인 급등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가상 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AI(인공지능)가 전통 금융과 갖는 접점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재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7년 1차 비트코인 버블(거품) 당시 범정부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일하며 가상 자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량 가상자산 시장에서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을 타야 한다”고 말했다./김기훈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3/27/EM6PLYNPNVBOVILWE5JNFPOX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원인은?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한 이후 2017년, 2021년, 2024년 등 모두 3번 급등이 있었다. 2017년엔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2021년엔 팬데믹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막대한 규모로 돈을 풀어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한 데다, 비대면 활동으로 온라인과 가상 현실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비트코인이 주목받았다.

올해 3번째 급등은 과거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먼저, 2022년 이후 가상 자산 거래소 파산 등 업계 내부의 대형 악재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둘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4월로 다가오면서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됐다. 셋째,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가하면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으로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차례 버블

- 과거의 거품과 다르다는 뜻인가?

“2017년 1차 버블 때 비트코인 최고 가격 1만9600달러는 버블 시작 전 평균 가격 250달러의 약 80배였다. 남해해운, 톨립, 닷컴 등 금융 역사상 유명한 버블은 30배 정도에서 붕괴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1만9600달러가 적은 금액이지만, 거품 배수로 보면 지금보다 2017년이 더 컸다. 역사상 최대의 금융 버블이었다.

비트코인 버블의 특이한 점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유용성이 별로 없는 혁신 기술이나 제품의 버블은 대개 한 번에 끝나고 사그라든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버블의 반복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즉 새로운 장부 기록 기술이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하며 사용자와 씬씀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 기술의 특성이 뚜렷하다. 기록 기술의 혁신은 인류 문명의 비약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오지 않았나.”



가상자산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응용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 대용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뉴욕 시내의 한 비트코인 인출기./로이터 연합뉴스

- 비트코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전 세계 해외 이주 노동자 가운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법정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본국에 송금하는 사람이 많다.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송금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응용 기술이 등장해 비트코인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오디널스 같은 소유자 새김 기능도 추가되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음원, 부동산, 채권, 예금 거래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3/27/EM6PLYNPNVBOVILWE5JNFPOX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물 ETF가 허용되면서 비트코인이 금과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됐다.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전자 지급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제 기능보다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인 '디지털 금'으로 각광받고 있다."

◇비트코인 더 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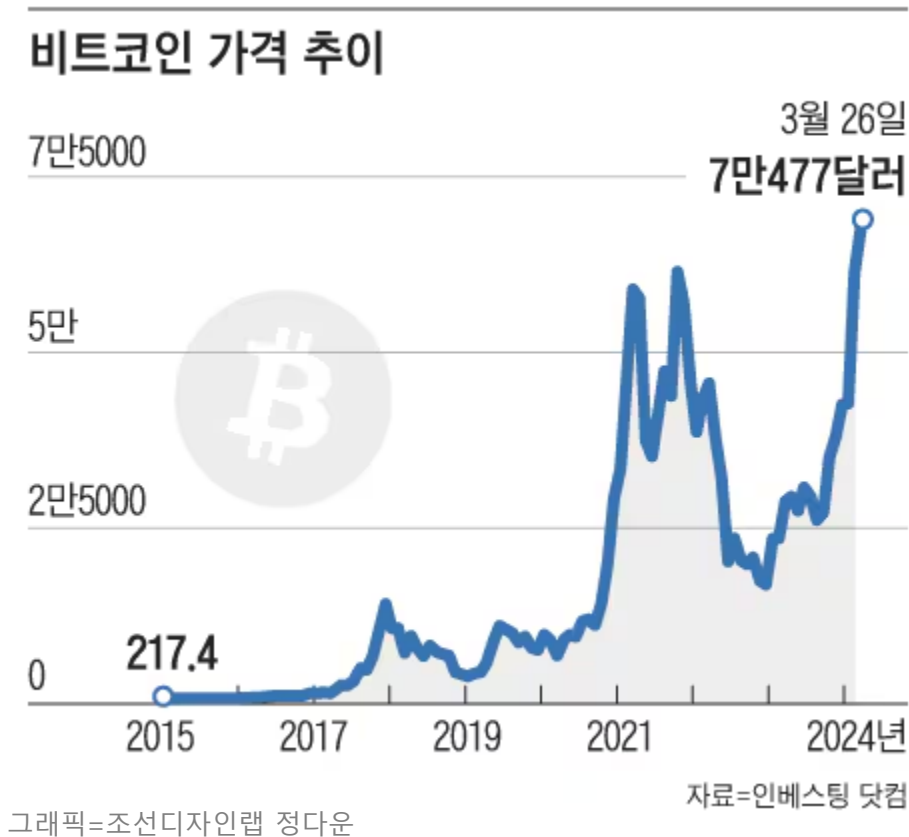
-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 가격 흐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지금이 자금 유입의 초기라는 것은 확실하다. 현물 ETF의 등장으로 연기금 등 보수적 기관투자자들이 조금씩 보유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자산 중에서 시가총액 1위는 금(14.5조달러)인데, 비트코인(1.34조달러)은 7위인 은(1.43조달러)과 규모가 비슷해졌다.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 변동성은 줄어드는 반면, 위험 자산 중 달러 표시가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주요한 금융 투자 자산으로 확고하게 정착했다고 본다.

다만 투자자들이 급등 기회를 놓칠까 봐 무분별하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가상 자산별 속성을 잘 파악한 뒤, 거품이 꺼진 후에도 손실을 감당할 만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이 기술적 유용성이 검증되고 투자 자산으로 안착한 대표 종목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기 수익보다는 새로운 기술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해야 한다."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위협하지 않을까?

“가상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만들어 은행 간 대규모 자금 거래를 분산 원장 방식으로 처리하고, 소매 금융 시장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다.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이 결합하는 것이다.”

◇독점 강화하는 미국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3/27/EM6PLYNPNVBOVILWE5JNFPOX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미 가상 자산 업계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영역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탈중앙 방식의 거래, 대출, 보험 등 디파이(DeFi) 금융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생소한 영역에서 변칙적인 방식의 금융 활동이 성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국이 가상 자산 시장을 인정하고 빨리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600만명 이상이 가상 자산 활동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명한 공시와 가치 평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의 ‘그림자 은행’처럼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 세계의 약 25%인 반면,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정도 된다. 그런데 가상 자산 중 각국 통화 가치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98%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미국 달러의 패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원화도 더 늦기 전에 이 흐름을 타야 한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안착되면서 전통금융과의 관계를 조율할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뉴스 1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3/27/EM6PLYNPNVBOVILWE5JNFPOX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 Blockchain News

“가상 자산 패권 강화하는 미국...한국도 따라가야”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인프라 서비스의 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상 자산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피해 방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금융 체계 건전화 관점에서 대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전쟁은 이미 조용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가 시장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상 자산의 허브가 되기 위해 뛰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고 있다.”

◇한국 떠나는 한국 기업들

- 한국은?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나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지원을 받기는커녕, 하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몇 년 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기업과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 시장 중심축, 아시아서 美로 이동...ETF 출시 영향



아시아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셔터스톡]

25일(이하 현지시간) 비트코인(BTC)이 7만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미국에서 시장 변동성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격차를 추적하는 리서치 회사 카이코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격차가 아시아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아시아보다 미국 개장 시간 동안에 더욱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단속이 한창이던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아시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 활동은 아시아 시간대에 더욱 활발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거래의 초점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됐으며, ETF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110억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138>

2. Blockchain News

비트코인 시장 중심축, 아시아서 美로 이동...ETF 출시 영향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25일 기준 비트코인은 싱가포르에서 약 1% 하락한 7만265달러를 기록했고, 미국에서는 7만1000달러를 잠시 돌파한 후 약 7% 하락했다.

2. Blockchain News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거래소별 RWA 코인 거래액



RWA 코인 거래소별 거래액. 출처=코인마켓캡

RWA(실물자산) 관련 가상자산이 한국 시장에서 하루 동안 1.8조원어치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애셋>이 3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가상자산 정보제공 플랫폼 코인마켓캡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상장된 주요 RWA 가상자산의 거래액은 1조7894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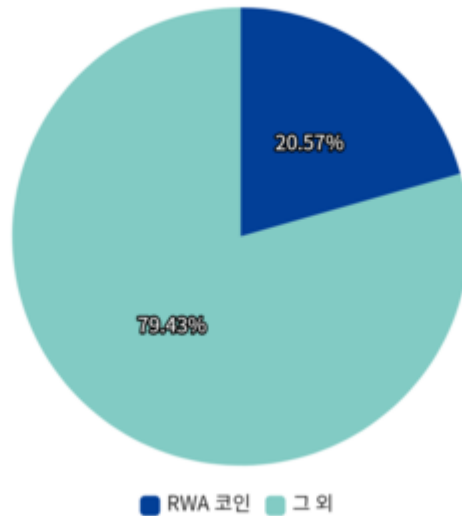
5개 거래소 총 거래액 10조3281억원 중 17.33%가 RWA 코인 거래였다.

아래 거래액 계산 시점은 모두 3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이다.

2. Blockchain News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업비트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업비트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먼저 업비트 상장 RWA 코인 거래액은 1조709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비트 거래액 8조3063억원 중 20.57%를 차지했다.

POLYX(폴리매쉬)가 거래액 1조383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개 거래소의 전체 RWA 코인 거래 중 77.29%가 POLYX 거래인 셈이다.

그 뒤로 CTC(크레딧코인) 2077억원, AVAX(아발란체) 768억원, LINK(체인링크) 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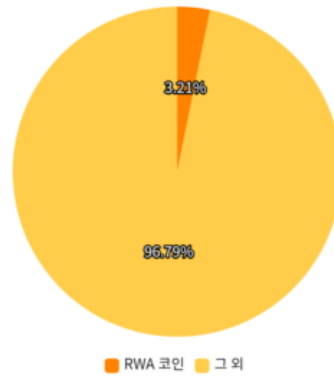
업비트 상장 RWA 코인은 AVAX, LINK, MKR(메이커), SNX(신세틱스), POLYX, RSR(리저브라이트), CTC, CHR(크로미아)이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6612>

2. Blockchain News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빗썸 RWA 코인 거래 비중



빗썸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출처=코인마켓캡

빗썸 상장 RWA 코인 거래액은 581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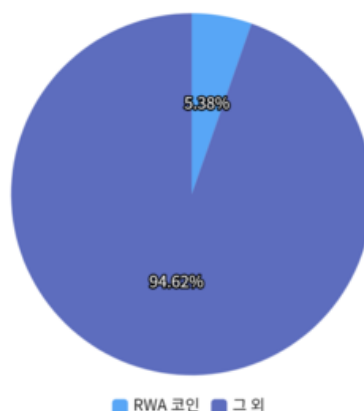
빗썸 전체 거래액 1810억원 중 3.21%를 차지했다.

RSR이 24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TC 920억원, AVAX 805억원, LINK 58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빗썸 상장 RWA 코인은 AVAX, LINK, MKR, RSR, CTC, CHR, XVS(비너스)다.

코인원 RWA 코인 거래 비중



코인원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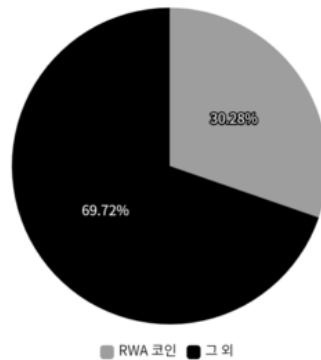
출처=코인마켓캡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6612>

2. Blockchain News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코빗 RWA 코인 거래 비중



코빗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출처=코인마켓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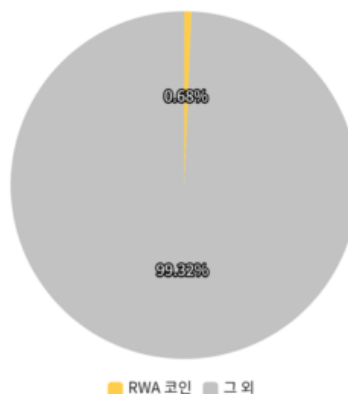
코빗의 RWA 코인 거래액은 139억원을 나타냈다.

전체 코빗 거래 462억원 중 30.28%에 달한다. 5개 거래소 중 RWA 코인 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CTC가 127억원으로 거래액이 가장 높았다.

코빗 상장 RWA 코인은 AVAX, LINK, ICP, MKR, SNX, CFG(센트리퓨즈), CTC다.

고팍스 RWA 코인 거래 비중



고팍스 RWA 코인 거래 비중. 출처=코인마켓캡

출처=코인마켓캡

2. Blockchain News

RWA 코인 한국 시장 거래액 '1.8조'

고박스 상장 RWA 코인은 AVAX, LINK, MKR, SNX, CTC다.

전체 코빗 거래 462억원 중 30.28%에 달한다. 5개 거래소 중 RWA 코인 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CTC가 127억원으로 거래액이 가장 높았다.

코빗 상장 RWA 코인은 AVAX, LINK, ICP, MKR, SNX, CFG(센트리퓨즈), CTC다.

RWA 코인 국내 거래소 상장 현황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박스

AVAX(아발란체: 원화/BTC) LINK(체인링크: 원화/BTC) MKR(메이커: BTC) SNX(신세틱스: BTC) POLYX(폴리엑스: 원화/BTC) RSR(리저브라이트: BTC) CTC(크레딧코인: 원화/BTC) CHR(크로마아: BTC)	AVAX(아발란체: 원화) LINK(체인링크: 원화) MKR(메이커: 원화) SNX(신세틱스: 원화) RSR(리저브라이트: 원화) CTC(크레딧코인: 원화) CHR(크로마아: 원화) XVS(버너스: 원화)	AVAX(아발란체: 원화) LINK(체인링크: 원화) ICP(인터넛컴퓨터: 원화) MKR(메이커: 원화) SNX(신세틱스: 원화) ONDO(온도파이낸스: 원화)	AVAX(아발란체: 원화) LINK(체인링크: 원화) ICP(인터넛컴퓨터: 원화) MKR(메이커: 원화) SNX(신세틱스: 원화) CFG(센트리퓨즈: 원화) CTC(크레딧코인: 원화)	AVAX(아발란체: 원화) LINK(체인링크: 원화) MKR(메이커다오: 원화) SNX(신세틱스: 원화) CTC(크레딧코인: 원화)
--	---	--	--	---

RWA 코인 상장 현황. 출처=각 거래소, 코인마켓캡

2. Blockchain News

기약없는 비트코인ETF...맥빠진 가상자산 공약

[4·10 총선]법제화·제도정비 우선 입장
기본법 제정 단계서 ETF 등 논의될 듯



지난달 7일 열린 '금감원장-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금감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코인 투자자와 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적용 시기와 세부 내용은 법제화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시행 연기 검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

연초부터 총선 시즌이 본격화되고 코인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애초 여당은 지난달 따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미뤄 전체 공약집에 담는 수준에 그쳤다.

<https://v.daum.net/v/20240328082103134>

2. Blockchain News

기약없는 비트코인ETF...맥빠진 가상자산 공약

한달 전만 해도 투자자들과 업계는 정치권의 가상자산 공약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과세 유예, 법인 투자 허용 등 정책이 포함돼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와 제도 준비를 우선시하면서 ETF 허용, 법인투자 등 시장과 업계의 숙원은 기약이 없어졌다. 실제 이번 국민의힘 공약에는 ETF와 법인투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먼저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ETF 허용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 허용, 코인 매매차익 공제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등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이 시장을 자극하는 선심성 공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현재 시장상황과 관계당국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좋은데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ETF나 법인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정책을 만들면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없는 공약을 내지 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기본법 제정 등 차근차근 제도화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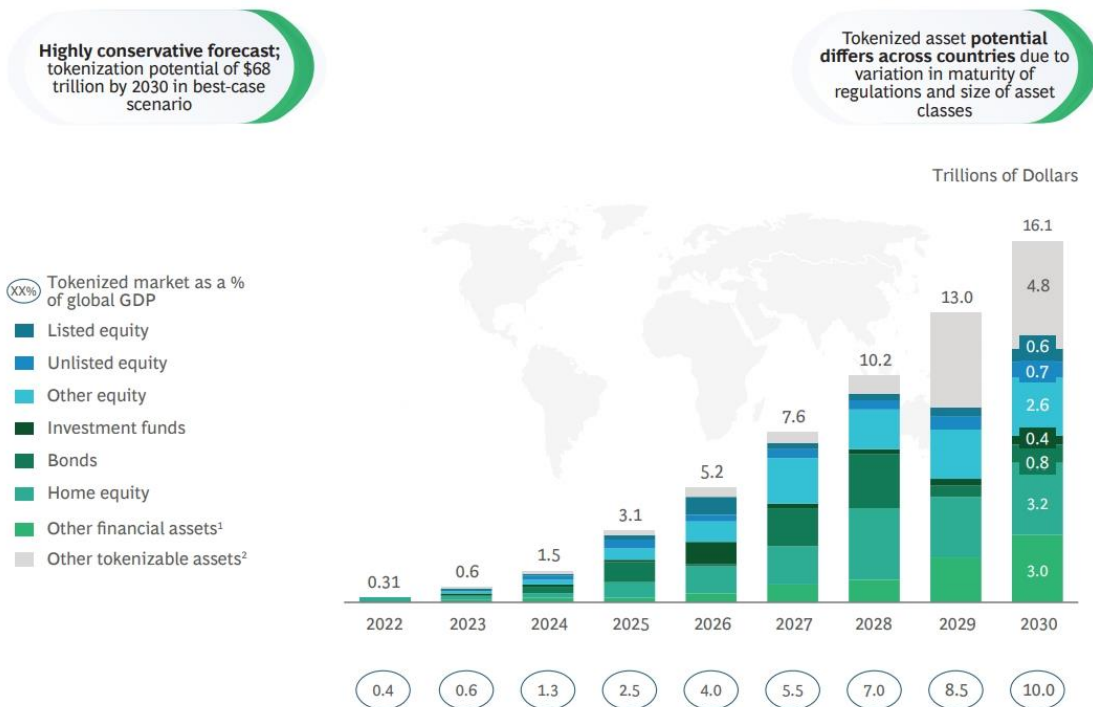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블랙록, 美 SEC에 RWA 펀드 신청...RWA 시장 관심 상승

2030년 16조 달러 예측...블랙록 CEO "ETF 다음은 RWA"

"ST와 차이 없어...마케팅 · 규제 모호성 활용 용도" 분석도

Tokenization of global illiquid assets estimated to be a \$16 Trillion business opportunity by 2030



출처=BCG 보고서 'Relevance of on-chain asset tokenization in crypto winter'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RWA 시장이 2030년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주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RWA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W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정적인 담보물을 통한 토큰이자, 비유동자산의 유동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ST와의 차별성 등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https://view.nate.com/economy/view/153566/?amp=1>

3. Blockchain Financial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RWA 펀드인 '블랙록 USD 기관용 디지털 유동성 펀드(BUIDL-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WA 관련 프로젝트 및 토큰이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올해 1월 BTC 현물 ETF 승인 이후 RWA에 대한 긍정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금융 자산의 토큰화"라며 "이를 통해 채권, 주식 시장의 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1년 낸 한 보고서에서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 금융의 RWA 시장 진출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각) 발간된 코인게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채 토큰 규모는 지난해에만 1억1400만 달러에서 8억4500만 달러까지 641% 성장했다. 이 중 38.6%에 달하는 3억3200만 달러가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발행한 '온체인 미 정부 머니 펀드(On-Chain US Government Money Fund)'였다.

# ▲	Name	Price	YTD %	30d %	7d %	24h %	Market Cap ①	Volume(30d) ①
☆ 10	 Avalanche AVAX	₩75,922.52	▲46.50%	▲52.64%	▼7.04%	▲6.45%	₩28,692,526,849,193	₩20,324,472,207,483 272,129,691 AVAX
☆ 14	 Chainlink LINK	₩25,305.14	▲25.92%	▲1.20%	▼2.71%	▲4.28%	₩14,802,459,723,682	₩10,321,270,577,381 412,430,922 LINK
☆ 20	 Internet Computer ICP	₩22,764.03	▲16.24%	▲37.27%	▲32.66%	▲21.46%	₩10,405,457,500,702	₩7,993,801,075,056 394,613,044 ICP
☆ 46	 Maker MKR	₩4,3...85.91	▲90.97%	▲59.25%	▲1.18%	▲6.05%	₩4,040,709,199,341	₩2,352,684,551,426 556,774 MKR
☆ 74	 Synthetix SNX	₩6,456.64	▲24.34%	▲23.07%	▲15.39%	▲8.92%	₩2,110,534,268,708	₩2,271,356,020,596 368,150,406 SNX
☆ 90	 Ondo ONDO	₩1,289.53	▲493.20%	▲116.95%	▲93.76%	▲32.81%	₩1,747,649,572,387	₩7,067,056,757,581 6,124,438,023 ONDO

<https://view.nate.com/economy/view/153566/?amp=1>

3. Blockchain Financial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출처=코인마켓캡블랙록의 RWA 펀드 신청 소식에 RWA 섹터로 분류된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금융의 RWA 시장 진출 확대에 기존 가상자산 업계 토큰들도 반응했다. RWA 선두 주자로 불리는 이라고 불리는 온도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인 'ONDO'는 최근 일주일간 94%, 이날 하루에만 30% 이상 급등했다. ST(증권형토큰) 플랫폼 폴리매쉬(POLYX)와 RWA 토큰화 프로젝트 센트리퓨즈(CFG) 역시 일주일 동안 각각 80%, 50% 이상 급등했다.

국내에서도 클레이튼이 크레더와 손잡고 1월 금 기반 RWA 사업을 시작했다. 크레더는 이달 초 미국 네바다주 금광 채굴권과 관련한 '디그니티' 토큰을 발행하기도 했다. 씨디파이(CeDeFi) 플랫폼 네오피 역시 이달 공개한 2024년 로드맵에서 RWA 기반 상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고, 28일 RWA 기반 자동화 프로토콜인 '네오피 BDLP(채권 파생상품 연계 프로토콜)'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경우 기관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하고 있어, 기관자금의 긍정적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기관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자체 규모가 커지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RWA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해외는 이미 기관자금이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화인 블록체인에반젤리스트는 "RWA와 토큰증권은 큰 차이가 없다. 사실상 용어만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같은 사업 모델에서 용어를 변경해 활용하는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최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모호성 측면에서도 RWA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 금융의 RWA 진입은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 행위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규제 접근성이 좋은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RWA는 규제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명확하지만, RWA는 증권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모호성을 사업자들이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view.nate.com/economy/view/153566/?amp=1>

3. Blockchain Financial

[주간코인시황] 결국 반등한 비트코인... "상승 여력 충분"

급락한 비트코인, 매수세 이어지며 반등
"반감기 기대감 등 상승 여력 충분"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놓고 의견 분분
부동산도 토큰 거래... RWA에 쏠린 관심



지난 22일 기준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추이와 주간 가격 상승률 순위. /쟁글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은 조정 이후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급락했지만, 다시 반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중장기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로스앵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주 대비 약 4%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100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하며 6만6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2.4% 하락한 수준이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3/23/37Q2QFE6UJCNXIFJTVSHDXF4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Blockchain Financial

[주간코인시황] 결국 반등한 비트코인... "상승 여력 충분"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3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곧바로 오름세로 전환하며 3500달러에서 거래됐다. 반면 같은 기간 알트코인은 강한 반등을 보였다. 지난 한 주간 솔라나는 1.9%, 아발란체는 2%, 애플토스는 12.8% 상승했다.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혜 쟁글 수석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유출액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일부 조정세가 나타났지만, 이내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했다"라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했다.

◇ 두 달 남은 이더리움 ETF 승인 결정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월 23일까지 첫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반에크(VanEck)의 이더리움 ETF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수는 반에크를 포함해 10여곳이다.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제임스 세이퍼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더리움 ETF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는 SEC와 금융사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더리움 ETF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의견 교환이 없다는 게 근거다.

3. Blockchain Financial

[주간코인시황] 결국 반등한 비트코인... "상승 여력 충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 뉴스1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상장돼 있어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 목록'에 등재하지 않은 점도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쟁글 관계자는 "이더리움 ETF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지점은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있다"라며 "최근 이더리움이 증권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은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 '차세대 금융' RWA가 뭐길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실물연계자산(RW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3/23/37Q2QFE6UJCNXIFJTVSHDXF4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Blockchain Financial

[주간코인시황] 결국 반등한 비트코인... "상승 여력 충분"

기존에 거래 가능한 전통자산뿐만 아니라, 미술품·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들까지 토큰화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토큰증권발행(STO)의 경우 증권성 상품에 국한돼 있지만, RWA는 이론적으로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어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주요 금융사들과 아발란체와 협력해 사모펀드 토큰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블랙록도 금융 서비스 기업 시큐리티타이즈와 함께 RWA 토큰화 사모펀드 출시를 예고했다.

쟁글 관계자는 "전통 금융사들이 RWA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음을 뜻한다"라며 "이는 더욱 빠르게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고 전통금융권의 견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쟁글(Xangle)은

웹3 솔루션 서비스 사업자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다.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기업가치 10조 파이어블록스, 한국 시장 넘본다[디센터 인터뷰]

'포괄적 디지털 자산 기술 플랫폼 기업'...한국 시장 탐색;한국, 가상자산 리테일 활발..."아시아 주요 국가 될 것"



스티븐 리차드슨 파이어블록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 디센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디센터

기업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토큰 발행, 가상자산 지갑, 커스터디, 지불결제 등 구축해야 할 시스템만 해도 상당하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파이어블록스는 이러한 인프라 기술 전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국 기업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점점 주목하면서 파이어블록스도 국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포괄적 디지털 자산 기술 플랫폼 기업'...한국 시장 탐색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스티븐 리차드슨 파이어블록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은 파이어블록스를 '포괄적 디지털 자산 기술 플랫폼(comprehensive digital

3. Blockchain Financial

기업가치 10조 파이어블록스, 한국 시장 넘본다[디센터 인터뷰]

asset technology platform)'이라고 정의했다. 파이어블록스는 전세계 1800여개 기업에 WaaS(Wallet-as-aService), 커스터디, 토큰화(Tokenization), NFT 발행 등 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블랙록이 발표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첫 토큰화 펀드(BUIDL)에도 파이어블록스는 빚고, 코인베이스 등과 함께 초기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파이어블록스는 개인 키 관리, 토큰 전송 네트워크를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국·이스라엘·홍콩·싱가포르·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파이어블록스는 최근 한국 시장 탐색에 나섰다. 리차드슨 총괄은 "과하게 투자를 하기보다 기회를 엿보며 시장 수요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서 "규제 동향을 살핀 뒤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해 올해 말쯤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영 기조를 반영하듯 최근 뽑힌 한국 담당 인력은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 리테일 활발..."아시아 주요 국가 될 것"

리차드슨 총괄은 국내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금지하면서도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규율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당국이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관을 규율하는 제도는 있지만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리테일 분야 성장은 기업의 가상자산 산업 참여를 독려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가 마련되면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기업가치 10조 파이어블록스, 한국 시장 넘본다[디센터 인터뷰]

금융사는 토큰증권·CBDC, 비금융사는 NFT 등에 관심 ↑

리차드슨 총괄은 국내 기업의 수요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금융사는 주로 토큰증권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양한 자산이 토큰으로 발행될 때를 대비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지 준비한다는 취지다. 반면 비금융사는 웹3를 활용해 사용자와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NFT를 이용해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음악·예술 등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갈지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파이어블록스는 지난 2022년 1월 5억 5000만 달러(약 7375억 5000만 원) 규모의 시리즈E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80억 달러(약 10조 7240억 원)로 평가받았다. 꾸준한 성장 비결을 묻자 그는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전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한다"면서 "최전선에서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디지털 자산과 웹3 기술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에게 엄청난 경쟁우위"라면서 "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 Blockchain Financial

투심 개선되자 깨어난 블록체인 콘텐츠, 다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NFT 활용한 카카오톡 패스 인증 출시
콘서트 티켓 NFT로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수명 인증에도 활용



27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2)'에서 관람객이 NFT 작품들을 보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최근 투자심리 개선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그간 개발에만 매진했던 웹3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매스어답션(대중화)을 위한 서비스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는 지난 19일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카카오톡 채팅방 서비스인 '클립 패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클립 패스 사용자는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소위 '패스 인증'을 NFT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NFT를 소유한 이용자만이 사용자가 만든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다.

https://m.news1.kr/articles/?5359990#_enliple

3. Blockchain Financial

투심 개선되자 깨어난 블록체인 콘텐츠, 다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해당 NFT는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했던 블록체인 클레이튼 위에서 발행되며 트랜잭션 (거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보 위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 같은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더 탄탄한 보안성을 가진 NFT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웹3 기업들이 지향하는 대중화도 이같이 기존 인터넷 기반의 웹2와 비교해 사용자 경험상에서는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성뿐만 아니라 NFT 소유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이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해 보인다.

클럽패스 외에도 최근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는 여럿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멧쟁이사자처럼은 암표 방지를 위해 장범준의 콘서트 티켓을 NFT 형태로 판매했다.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NFT의 기능을 활용해, 암표 문제를 방지했으며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추첨 기능에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체인링크의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으로 분류되는 파라메타(구 아이콘루프)의 전기차 배터리 수명 인증 서비스도 조만간 직접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파라메타에 따르면 아직 해당 서비스 출시 시점은 기업간거래(B2B) 거래 단계에서 조율하고 있지만, 향후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중고차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https://m.news1.kr/articles/?5359990#_enliple

3. Blockchain Financial

투심 개선되자 깨어난 블록체인 콘텐츠, 다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파라메타 관계자는 "중고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잔존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증명이 불가능하다보니 외관만 보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며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 나온다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배터리 잔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라메타는 해당 서비스의 실행을 위해 블록체인의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탈중앙저장소(BFS)와 탈중앙화신원증명(DID)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들을 적용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웹3와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도도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라 이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주목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라운드엑스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며 "이제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잘 살피며 (정식) 출시 시점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등록 수수료 인상, '큰 손' 불러 들이는 것"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자들은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P2P 암호화폐 거래소 팩스풀(Paxful) 공동 창립자이자 P2P 금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누네스(NoOnes) 공동 창업자인 레이 유세프(Ray Youssef)는 "최근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인상은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큰손들이 현지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P2P 지원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거래소는 나이지리아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보고서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 수수료를 3,000만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5>

3. Blockchain Financial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등록 수수료 인상, '큰 손' 불러 들이는 것"

나이라(1만8,620달러)에서 1억5,000만 나이라(9만3,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략은 나이지리아 암호화폐 시장의 P2P 거래에 대한 강한 선호와 충돌하여 상당한 장애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세프는 이러한 규제 문제에도 나이지리아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유세프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현지의 풍부한 P2P 거래자들을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P2P 거래자들을 자산으로 활용하고,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동맹으로 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앞서 2021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기관의 암호화폐 매매를 금지한 이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P2P 암호화폐 시장이 됐다.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본격 반등 언제쯤..."당분간 조정 지속될 듯"



▲ 비트코인(BTC)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매도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트코인이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68,000달러선까지 급반등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본격 반등에 실패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이후 정부는 틈틈이 비트코인을 사모아 1억2190만 달러(약 1602억원)어치를 매수했다. 13일 기준 보유고는 2862 비트코인이다.

이는 매도 세력이 안도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https://m.coinreaders.com/103630>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본격 반등 언제쯤..."당분간 조정 지속될 듯"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 인베스터(Farside Investors)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나홀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에는 133억3천만 달러, 피델리티 FBTC에는 69억3천만 달러 자금이 누적 순유입됐다.

JP모건 니콜라스 파니기르초글루 분석가는 "비트코인 ETF로의 순유입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지난 한 주간 상당한 유출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물 ETF를 통해 자금이 계속 순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자예 캐피털 마켓츠의 나임 아슬람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최근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다"며 "이번 상승 국면은 과거처럼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립토퀀트는 일반적으로 강세장은 단기 보유자의 "투자금의 84%~92%"로 끝나며, 현재 48%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6개월~3년 4개 연령대의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 차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중간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크립토퀀트는 "지난 수개월간 비트코인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 기관과 고래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반등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m.coinreaders.com/103630>

3. Blockchain Financial

비트코인 본격 반등 언제쯤..."당분간 조정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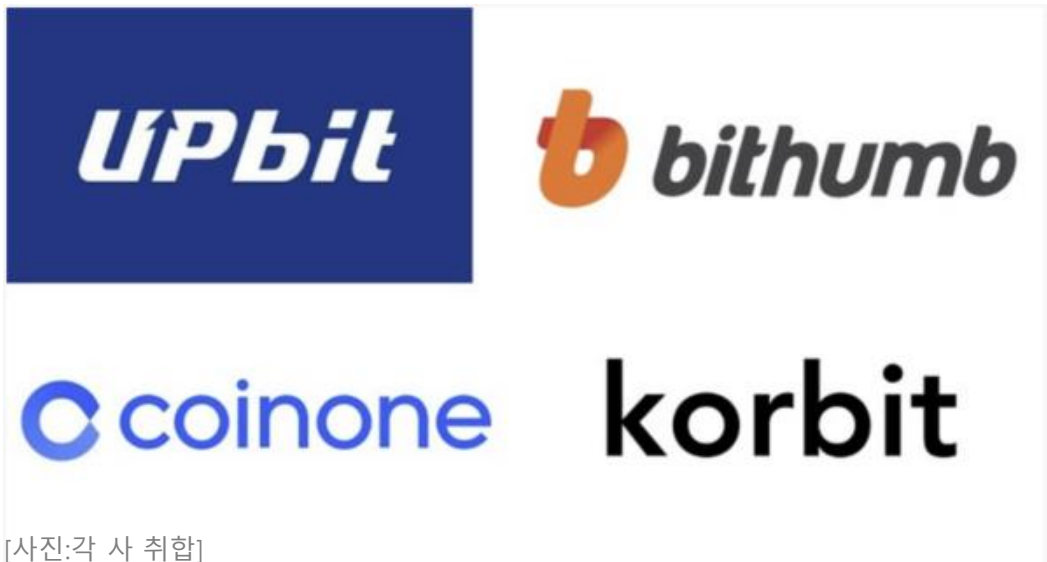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 조정은 포물선형 움직임이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강세장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건강한 신호이다. 모든 하락은 약세 포지션을 떨쳐내고 강세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조언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23일(한국시간) 오전 9시 28분 현재 비트코인(BTC)은 63,600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에 73,737.94달러의 사상 최고치인 기록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 거래소, 앱 개선 가속...차별화 어떻게?

업비트, 공지사항 접근성 강화
빗썸, 자바·네이티브로 일원화...화면 로딩시간 감소
코인원, 자산 메뉴 분리...입출금 서비스 편의성 제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화 거래소들이 잇따라 앱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업비트는 최근 공지사항의 게시물들을 9개 카테고리별로 분류했다. 이용자는 새로운 공지사항 화면에서 거래, 입출금, 이벤트, 점검 등 각 카테고리별로 마련된 탭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곳에 모인 게시물들을 탭으로 나눈 덕분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도록 돕는다고 업비트 측은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디자인 변경, 로딩시간 감소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입출금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만큼 원활하고 빠른 작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457>

3. Blockchain Financial

가상자산 거래소, 앱 개선 가속...차별화 어떻게?

국내 원화거래소 2위인 빗썸은 이번 개편을 통해 주소록 선택부터 입금, 신청완료까지 8단계로 이어지던 입출금 플로우를 간소화했다. 메뉴나 항목 이동 시 발생하는 딜레이와 로딩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웹 PHP 방식 대신 자바(Java)와 네이티브(Native)로 일원화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로딩 시간을 줄였다"며 "입출금 서비스를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도 보기 쉽게 개편했다"고 말했다.

코인원도 올해 초 입출금 절차를 개편했다. 코인원은 이용자가 화면에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입출금에 필요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과 자산 관리가 혼재돼 있던 기존 메뉴를 분리했다. 입출금 첫 화면에 자산 선택 화면을 제공해 자주 사용하는 자산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출금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주소록 관리 메뉴도 메인화면에 추가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용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은 지난해 로그인 및 회원가입 절차를 개편해, 기존 이메일 인증 방식에서 고객이 설정한 6자리 간편비밀번호 또는 페이스 아이디(Face ID)나 지문으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뚝'...비트코인 수요 폭발



아르헨티나와 비트코인 [사진:셔터스톡]

아르헨티나에서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BTC) 수요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레몬캐시(Lemon Cash)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아르헨티나에서 약 3만5000명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주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레몬캐시만이 수요가 급증한 유일한 플랫폼은 아니었는데, 라피오나 벨로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주요 거래소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달러 대비 페소화의 가치는 급락해 지난해 3월 페소당 0.0049달러에서 발행 당시 페소당 0.0012달러로 떨어졌다.

디지털 지갑 벨로의 마누엘 보드로이 최고경영자(CEO)는 "아르헨티나의 스테이블코인 구매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70%에서 60%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벨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보드로이는 전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919>

3. Blockchain Financial

필리핀 규제 당국, 현지 투자자 바이낸스 접근 차단 조치



필리핀 규제 당국이 현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성명에서 "플랫폼이 관할권 내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 필리핀 SEC는 국가통신위원회(NTC)에 바이낸스와 연결된 웹사이트 차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SEC는 "바이낸스는 필리핀인들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라며 "그러나 바이낸스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대중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3. Blockchain Financial

필리핀 규제 당국, 현지 투자자 바이낸스 접근 차단 조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필리핀 규제 당국의 조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한국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놴다. 국내 거래소 고박스를 인수해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3. Blockchain Financial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5% 오르며 현재 7만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프리세일에서 9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신규 ICO 그린 비트코인도 질주하고 있다.

◆ETF 수요 증가에 비트코인 펌핑 다시 시작, 분석가들은 8만 5,000달러 기대
올해, 새로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전례없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3월 중순에 BTC가 7만 3,750달러에서 정점을 찍은 후 매도세가 촉발되었다. 동시에 ETF 시장에는 자본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곧 6만 2,000달러와 6만 3,000달러 사이에서 지지선을 형성했으며 ETF 유출로 인한 물량을 모두 흡수해 7만 달러를 회복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출처=코인마켓캡)

코인 인플루언서 미스 크립토(Mister Crypto)는 지난주에 ETF가 곧 비트코인을 다시 매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자본금 순유입이 가장 컸던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후퇴하고 있을 때 투자자들은 매도하기 시작했다. ETF의 흐름에 역행하여 저가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11 Mar 2024	849.0	51.6	24.6	93.0	(19.7)	0.0	39.6	82.9	3.0	(79.0)	1,045.0
18 Mar 2024	451.5	5.9	17.6	2.7	0.0	0.0	4.8	5.7	0.0	(642.9)	(154.3)
19 Mar 2024	75.2	39.6	2.5	0.0	0.0	0.0	0.0	0.0	0.0	(443.9)	(326.2)
20 Mar 2024	49.3	12.9	18.6	23.3	(10.2)	19.0	2.9	9.3	0.0	(386.6)	(261.5)
21 Mar 2024	233.4	2.9	12.0	2.0	4.2	3.8	4.7	1.8	0.0	(358.8)	(94.0)
22 Mar 2024	18.9	18.1	16.3	5.4	4.5	29.6	25.5	0.0	0.0	(169.9)	(51.6)

(출처=X (@misterrcrypto))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08>

3. Blockchain Financial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또 다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캡틴 파이빅(Captain Faibik)은 비트코인이 상승 썰기형 차트에서 지지선을 찾았으며 8만 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캡틴 파이빅은 지난주 조정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펌핑할 때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이 발생하면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다고 불평한다.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필요했던 15% 조정을 마쳤으며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아직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너무 일찍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했다.

인기 논평가 사토시 플리퍼(Satoshi Flipper)는 비트코인이 대칭 삼각 패턴을 상향 돌파했으며 그 결과 8만 달러를 향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트코인 차트에 하락 채널 구간이 발생했다가 상방으로 깨져 사토시 플리퍼의 예측을 뒷받침했다. 그는 "8만 달러가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X (@misterrcrypto))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08>

3. Blockchain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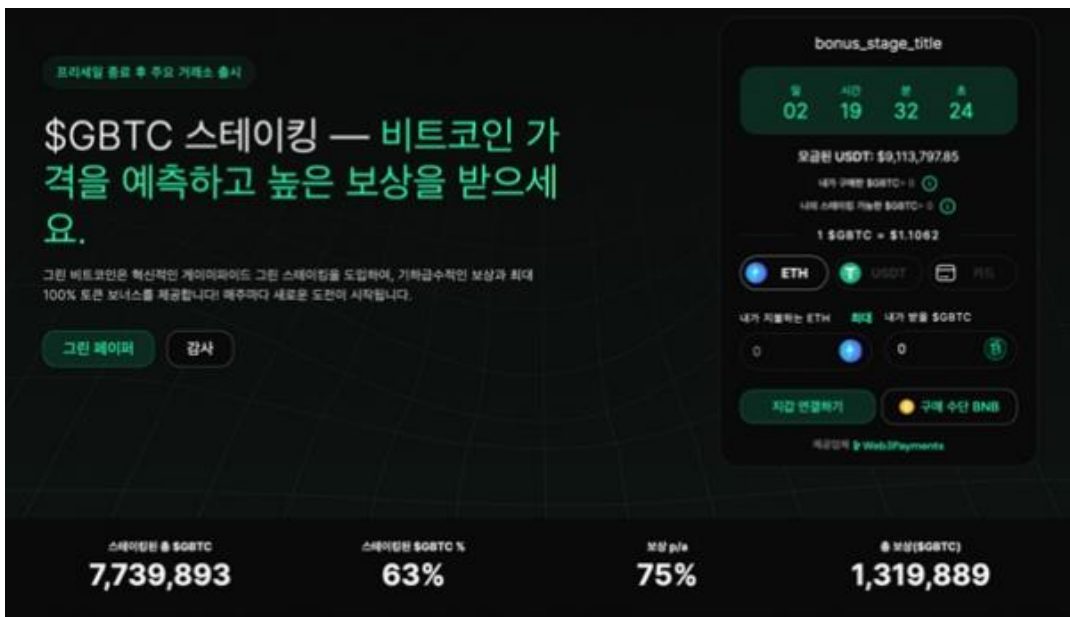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비트코인의 반등이 투자자 사이 기대를 높이고 있는 지금, 신규 ICO 그린 비트코인도 사전 판매 종료를 앞두고 900만 달러 이상 모금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딕트-투-언 크립토 그린 비트코인, 900만 달러 모금, 2일 후 사전 판매 종료
 그린 비트코인(Green Bitcoin, GBTC)에는 매력적 토큰 보상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GBTC는 비트코인에 대한 친환경 대안으로, 견고한 사용 사례와 흥미로운 보상 구조로 투자자의 시선을 끌었다.

업계 인플루언서도 그린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기에 부채질하고 있다. 프리세일 전문가 제이콥 버리는 최근 그린 비트코인이 상장 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코인텔레그래프, 테코피디아, 인사이드 비트코인스, 비트코이니스트 등 주요 암호화폐 매체도 그린 비트코인의 인기를 보도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GBTC Staking interface. On the left, it says '\$GBTC 스테이킹 —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높은 보상을 받으세요.' (Staking — Predict Bitcoin prices and receive high rewards). Below this, it mentions a 100% bonus for early staking. On the right, there's a 'bonus_stage_title' section with a countdown timer showing 02:19:32:24. Below the timer, it displays '모금된 USD: \$9,113,797.85' and '1 \$GBTC = \$1.1062'. There are buttons for 'ETH', 'USD', and 'BTC'. At the bottom, there's a table with staking statistics:

스테이킹된 총 \$GBTC	스테이킹된 \$GBTC %	보장 p/e	총 보상(\$GBTC)
7,739,893	63%	75%	1,319,889

(출처=그린 비트코인 홈페이지)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08>

3. Blockchain Financial

ETF 거래량 증가하며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이후 가격 전망은...?

그린 비트코인은 원조 비트코인에 관한 여러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에 있다. 그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방식 대신 지분증명 방식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비트코인 거래가 1,173,000 Wh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린 비트코인은 34 Wh만 소비한다.

유틸리티도 추가되었다. 그린 비트코인의 핵심 기능은 프리딕트-투-언으로, 투자자가 다음날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GBTC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시세 예측 챌린지에 도전하려면 GBTC 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하기 때문에 GBTC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 75%의 스테이킹 보상도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스테이킹 풀 규모가 커지면 보상률은 감소할 수 있다.

이제 그린 비트코인 사전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날도 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구매하면 1 GBTC를 \$1.1062에 구매할 수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모든 비트코인이 매수되고 있다” 암호화폐트의 ‘유동성 위기’ 경고

비트코인의 수요는 급증하는 누적량에 힘입어 월간 수치가 40,000 BTC에서 213,000 BTC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GBTC를 제외한 미국 ETF는 BTC 잔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현재 매도 측 유동성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연초 40,000 BTC였던 월간 수요가 현재 213,000 BTC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누적 주소의 총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유동성 위기,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할 듯

<https://kr.beincrypto.com/markets/51655/>

3. Blockchain Financial

“모든 비트코인이 매수되고 있다” 암호화폐트의 ‘유동성 위기’ 경고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 수요 급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GBTC를 제외한 이들 ETF의 비트코인 잔고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들의 잔고는 117,000 BTC에서 185,000 BTC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물 ETF를 통한 기관 투자가 비트코인 수요를 증폭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량 보유자, 즉 ‘고래’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도 포물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10,000 BTC를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의 총 보유량은 2024년 초 87만 4,000 BTC에서 사상 최고치인 157만 BTC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보유량. 출처: 암호화폐트

3. Blockchain Finan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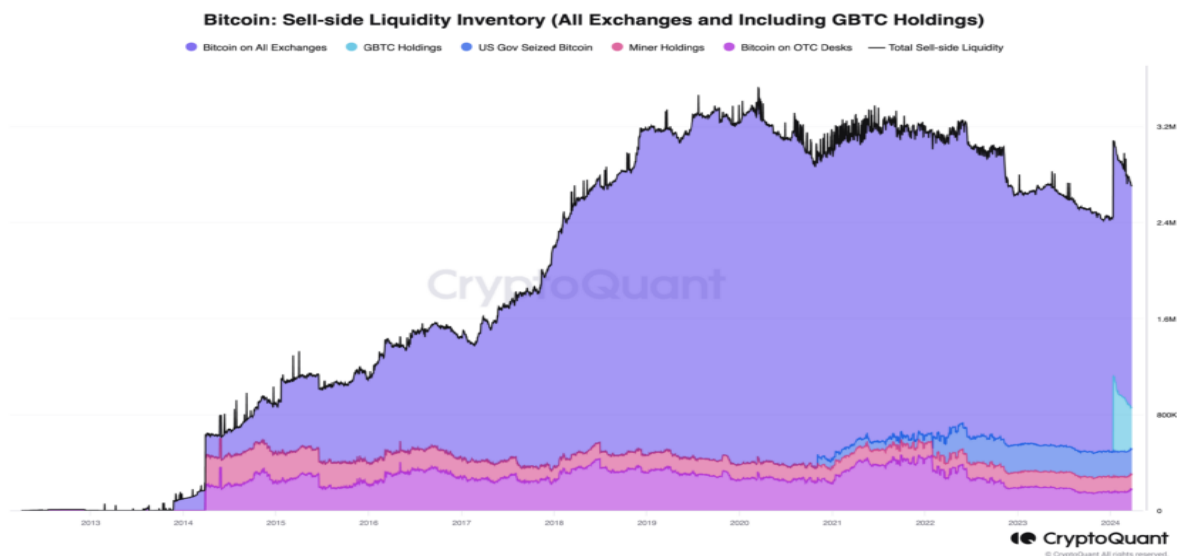
“모든 비트코인이 매수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유동성 위기’ 경고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매도 측 유동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에서 눈에 보이는 비트코인 총량은 270만 BTC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의 350만 BTC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수요와 판매 측 유동성 감소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재고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측 유동성은 주소 누적에 따른 수요만 가정하더라도, 향후 12개월 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거래소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주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공급한다는 전제인데, 유동성 재고가 6개월치 수요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비트코인 수요와 매도 측 유동성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재고가 수개월 수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유동성 재고 감소는 가격 상승을 지지할 것입니다.”라고 암호화폐의 애널리스트는 썼습니다.



3. Blockchain Financial

“모든 비트코인이 매수되고 있다” 암호화폐트의 ‘유동성 위기’ 경고

이러한 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의 강세 미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러한 조건에서 가격 조정은 “강세장에서 최대 약 30%의 하락을 수반하며, 최대 고통은 51,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Blockchain Financial

"현금화 불가능"...거래소에 묶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출금 수수료로 가상자산 수취
법인계좌 개설 막혀...OTC 거래도 힘들어
"법인 개설 허용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규모 가상자산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데다 장외거래(OTC)도 힘들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수수료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OTC 등을 통해서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과 코인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코빗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듯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https://decenter.kr/NewsView/2D6TOP4GF7/GZ03>

3. Blockchain Financial

"현금화 불가능"...거래소에 묶인 가상자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규모 가상자산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데다 장외거래(OTC)도 힘들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수수료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OTC 등을 통해서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과 코인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코빗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듯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원화마켓(KRW)에서는 수수료를 원화로 받지만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로 거래하는 BTC·USDT 마켓에서는 각각 수수료를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취한다. 업비트는 원화마켓과 더불어 BTC마켓·USDT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원화마켓과 BTC마켓을 지원한다. 코인원과 코빗은 원화 마켓만 운영 중이다.

입출금 수수료(부가세 포함)

업비트 회원 간 송금시 바로출금 기능을 이용한 경우 입출금 수수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코인	네트워크	최소출금가능금액	입금수수료	출금수수료
KRW		1.0	무료	1,000.0
BTC	Bitcoin	0.001	무료	0.0009
POWR	Ethereum	8.9	무료	8.9
ETH	Ethereum	0.02	무료	0.01
ETC	Ethereum Classic	0.02	무료	0.01
SNT	Ethereum	183.8	무료	183.8
STORJ	Ethereum	3.8	무료	3.8
MTL	Ethereum	1.9	무료	1.9
QTUM	Qtum	0.01	무료	0.01
XRP	Ripple	1.0	무료	1.0

업비트는 가상자산 별로 출금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출처=업비트.

<https://decenter.kr/NewsView/2D6TOP4GF7/GZ03>

3. Blockchain Financial

"현금화 불가능"...거래소에 묶인 가상자산

이밖에도 거래소는 가상자산 출금이 이뤄질 때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입금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금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종류별로 다르다. 업비트의 비트코인(BTC) 출금 수수료는 0.0009BTC, 이더리움(ETH) 출금 수수료는 0.01ETH다. 빗썸의 출금 수수료는 업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BTC는 0.0008BTC, ETH는 0.009ETH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 가상자산별 출금 수수료를 정액으로 책정했다.

이렇듯 거래소를 운영하면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쌓이지만 이를 현금화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BTC는 1만 5561개, ETH는 8519개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렵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OTC 거래를 하기도 힘들다. 법인 간 가상자산 거래를 원화로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원화마켓이 열린 5대 거래소뿐이다. 원화를 매개로 합법적으로 OTC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0곳'이라는 의미다.

현금화가 어렵기에 거래소들은 스테이킹으로 가상자산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수익으로 얻은 가상자산을 트레이딩(운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업비트 밸리데이터에 스테이킹한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보유한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해 시장에 보다 자금이 투명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어 음성화된 OTC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거래소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decenter.kr/NewsView/2D6TOP4GF7/GZ03>

4. DaWinKS Overview

Blockchain Financial Technique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한 DTM, CTM & QR Pay POS 운영
- 전세계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판독과 안면인식 -> 본인확인 고도화
- KYC, AML 체크 후 QR(Wallet) 발급
- QR(Wallet) Pay 연동 실물화폐 및 암호자산 결제 POS(App) 시스템
- Metaverse/가상세계 & IRL(In Real Life) /현실세계 연동 NFT, Defi 금융서비스 실현

특허 기반의 차별화된 DIGITAL ATM 기술



- 특허 기반의 독자적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술로 KYC 완벽 구현 - 1차 본인인증
- 신분증(여권) 사진과 AI 얼굴영상(Liveness/2D,3D) 매칭 - 2차 본인인증
- 고도화된 본인인증(KYC) 기술로 불특정다수인(외국인포함) 대상 외환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 입출금·결제·환전·송금·충전·예금·대출 등 기존 금융 핀테크 + Crypto Defi 융합 플랫폼
- 전세계 유일의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동시 운영 ATM 플랫폼

2024-14호

Thank you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DAWIN
Blockchain Total Solution